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3월 2일(금)  
(음력 1월 15일)

Пятница

2 марта 2018г.

№ 8(11677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사할린에 봄이 오고 있다. 쌓인 눈더미도 녹아들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봄기운에 버드나무의 꽃이 피었다.  
(이에식 기자 촬영)

## 단신

### 사할린정부, 철도 개선 시 운송문제 해결

극동철도는 2018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할린에 열차 통행을 중단한다. 이유는 사할린에서 철도 개선문제와 관련돼 있다. 사할린에서는 가라후토 시대 때부터 철도를 이용했는데 철도가 전 러시아에 이용하는 넓이보다 좁다. 올해는 전 러시아 기준으로 52.4km의 철도로 교체할 예정으로 새 철도 선로 공사는 체호브, 노위솔로워와 토마리, 그리고 일리인스키부터 아르센저엠피카까지 진행된다. 또한 철도 교체 외에도 교량 32곳을 새로 건설하고 일부 철도역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기차통행을 중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주정부는 3개월간 승객과 물류운송에 차량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철도 개선 사업은 2003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철도 806킬로미터에서 626킬로미터를 개선했고 새 교량 64개와 배수관 80개를 공사했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처음 전국 혁신기획 콩쿠르 단계 개최

<스콜코워>후원과 사할린주 정부는 유명 기업인, 투자자와 지도자들과 함께 <열린 혁신>행사를 조직했다. 2월 28일-3월 1일 이틀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300여명이 강연과 주제별 세션에 참가했다.

첫날에는 참가자들 앞에 페카 윌리카이넨 <스콜코워>폰드 이사장 고문, 키릴 카엠프 조직혁신회 부이사장 수석, 기업인 등의 발표가 있었다. 두 번째 날에는 <산업노선>, <정보기술>, <의학과 농촌 경제에서 생명공학기술>부문들에서 경연이 이뤄졌다.

경연 참가 신청은 57건이 접수되었는데 17개 프레젠테이션이 예심을 통해 발표되었다. 준결승에 오른 사람들은 <열린 혁신> 전 러시아 콩쿠르에 출전해 큰 상금을 받게 된다.

올해 스타트업-관광 부문에 러시아 11개 지역(칼리닌그라드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까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가 목록에 오른 것은 사할린 정부의 지원으로 전망적 혁신기획이 실현된 데 있다.

### 사할린 언론인들, <극동지역은 20세기 러시아의 우선 순위> 미디어 포럼에 참가

2월 26-27일 하바롭스크에서 <극동지역은 21세기 러시아의 우선 순위>미디어 포럼이 열렸다. 여기에 기자 및 언론인, 블로거, 광고주, 마케팅 담당자 등 1천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미디어 산업계의 수석 전문가들과 함께 원탁모임, 강의와 활동교실에서 극동 연방구의 추진 구상을 논의했다. 대규모 행사는 러시아연방 정부 부총리인 유리 트루트네브 극동연방구 대통령전권대표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포럼에서는 극동지역의 긍정적인 입장의 다양한 표본들을 내놓았다. 그중 가장 뜨겁고도 매일 떠오르는 의제인 <극동 핵타르(토지분배정책)>였고 토론장에서는 사할린에서 개최된 <크라이스웨타>사할린국제영화제도 논의되었다.

## 2018 러시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시작

사할린주에서 2018 러시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월 25일 시작되어 3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사할린주 선거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10개 지방자치체에서 진행되는데 접근이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군장병들, 등대와 기상 관측소 근로자, 사할린 북부지방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석유가스 직원들, 그리고 선거당일 바다로 출항하는 선원 등 총 5000여 명에게 실시될 예정이다. 접근이 어려운 곳은 선거위원회 위원들이 헬리콥터 또는 차량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사전 투표는 우선 크릴리온 곳에서 시작했다고 2월 28일(수) 오후 주선거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되었다. 사할린의 변화무쌍한 날씨로 인해 북 쿠릴의 숨수섬, 네헬스키의 모네펀섬에는 며칠간 양호한 날씨를 관광 중 선거위원회 위원들이 계획한 도착일이 지연되기도 했다. 또한 선거일에 100여 척의 선박들이 바다로 출항할 것을 예측한 가운데 선거위원회에서는 투표소 조직 등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있다.

3월 18일은 러시아 대통령선거일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까지로 러시아연방 중앙선거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로 8명이 등록했다. 그중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등록된 블라지미르 푸틴과 여러 정당을 대표하는 7명의 후보로는 블라지미르 지리놉스키(자유민주당), 파벨 그루지닌(러시아연방공산당), 크세니야 슈차크(국민발의당) 그리고리 야블린스키(<야블로코>), 보리스 피토프(파르피야 로스타(발전당)), 세르게이 바부린(러시아 국민연합당)과 막심 수라이킨(러시아 공산주의자당)이다. (본사기자)

## 전 러시아고려인연합회 회장으로 조 와실리 재선

지난 25-26일 심페로폴리에서 전 러시아고려인연합회 대표자 총회가 열렸다. 총회 참가자들은 본 연합회 5년간의 사업보고, 감사위원회 보고를 받고 연합회 정관 수정 사항과 활동 전망 등 문제를 논의했다. 전 러시아고려인연합회 회장으로서는 조 와실리가 재선되었고 운영위원은 7명으로 선정되었다. 사무총장으로는 김 왜체슬랍이 승인, 선출되었다. 또한 본회 공의회는 전 러시아고려인연합회 단체회원으로 돼 있는 모든 단체장들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으로는 김 모이세이가 선출되었다.

결산보고에 따르면 현재 본회는 45개 지역 단체, 50여개 지부, 민족문화자치회, 연합회, 민족문화센터 등을 통합하고 있다. (본사기자)

## 3월 4일 파르후트지노브 기념 사할린 스키 마라톤(크로스컨트리) 개최

3월 4일(일) 이고리 파르후트지노브 추념 사할린 스키 마라톤이 진행된다. 전통적으로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할린 스키대회에는 섬지역 선수뿐만 아니라 극동지역, 시베리아, 우랄, 그리고 러시아 중앙지역 아마추어와 전문 선수들이 모여든다. 이날 성인들은 50킬로미터와 30킬로미터를 질주할 예정이다. 이번에 우승자와 수상자들에게는 푸짐한 상금이 기다리고 있다. 출전자들은 연령별 8개 그룹(18-29, 30-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이상)으로 나뉘어 경쟁하게 되는데 현재 30킬로미터 지원자 중 최고령자로는 71세, 50킬로미터 지원자 중에서는 68세라고 알려졌다.

동계스포츠학교 학생들도 스키대회에 참가하면서 크로스 컨트리 경주에서 10세 미만의 아동들은 1킬로미터, 10세 이상의 학생들은 5킬로미터를 달린다. 이들은 동계스포츠학교(웬스카야 거리) 근처에서 10시 20분 출발할 예정이다. 30km와 50km의 출발지는 레스노예이다.

이번 경기에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 그리고 외국인 2명도 참가를 희망했다.

조직위원들은 이번 대회에 3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2월 17일 필자는 아니와 한인회가 주최하는 설맞이 행사에 초대받아 주한인노인회 김홍지 회장과 함께 아니와를 다녀왔다.

가는 도중에 김 회장은 "보다 젊은 층, 40-50대들이 아니와 한인사회계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니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니와에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지방 설맞이 행사에 가는 동기를 설명했다.

사실 필자도 최근에 들어 코르사코브, 홈스크, 마카로브 등 한인행사들을 찾아보긴 했는데 아니와는 정말 오랜만이였다.

행사는 동포가 운영하는 <21세기>카페에서 진행되었는데 장기간 큰 한인행사가 없어서 약 8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1년 전에 새로 선출된 아니와 한인회 이원도 회장과 그의 동료들인 운영위원들의 협력으로 공식적으로 마련하는 첫 음력 설행사인 만큼 조직자들에게는 열려가 있었다.

푸짐하게 차려놓은 상, 명절 옷차림을 한 40-80대 사람들, 입구에서 손님들을 우리말로 마중하는 학생들, 화려한 한복을 한 여성분들 -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명절 분위기를 한껏 안겨주었다.

명절 프로그램은 배 안젤라(배영희) 한인회 부회장(문화교육부 담당)이 준비하고 추진했다.

배 부회장의 지휘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그룹이 관객들에게 큰 절도 올렸다.

전 회장이 이주하여 한인회 임원이 새로 선출된 이후 아니와 한인사회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한인회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후원금

# 작년에 새로 출발한 아니와 한인회

## 호흡이 잘 맞는 이원도 회장과 배영희 부회장



이원도 회장



배영희 부회장

이라 할까' 거의 매월 돈 300루블리 정도를 내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이원도 한인회 회장과 지식민 운영위원이 개인사업가로서 필요하면 아무 말없이 동포를 위해 돈을 많이 쓰고 있다"고 배영희 부회장은 말했다.

이원도 회장을 행사장에서 지켜본 필자는 50대 중반, 60대를 바라보는 이 회장은 이날 방문한 손님들을 잘 반기며 특히, 어르신들을 챙기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기가 좋았다. '참 좋은 리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각자가 담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재정을 맡은 회계 담당, 문화교육 담당자, 스포츠 담당자, 여성부 담당자, 다들 알아서 잘 하십니다. 저는 감사장에서 명만 하는 것뿐입니다."라고 이 회장이 웃으면서 말한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좋은 지도가 필요한데 이 역할

도 이원도 회장이 잘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행사를 준비할 때 운영위원들은 매주 회의를 갖는다.

특히 회장과 부회장의 호흡이 잘 맞아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간다. 그리고 서로 믿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새 운영위원들의 장점이다.

이들은 이미 광복절 들놀이도 진행했고 아니와 시의 기념일 행사에도 참가하고 <세계 민족 요리>박람회에서 한민족 요리 - 비빔밥을 만들어 소개했다. 시식하는 시민들은 매우 만족했다고 한다. 그리고 9월에는 보성에서 학생교류단 60여 명이 왔었는데 아니와 한인회에서 한국학생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한다.

아니와구역 청소년예술관의 협조로 한인회는 보성의 학생들을 위해 블린너 만들기부터 러시아 문화체험 시간을 조성했다. 러시아 민속공연도 보여주고 직접 여러 가지를 체험하도록 하여 러

시아 사할린을 처음 다녀간 학생들의 만족도도 꽤 높았다는 말을 전했다. 무엇보다 사할린 여행을 많이 즐겼다고 한다. 사할린에 오기 전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를 돌아보았지만 거기에서는 견학프로그램만 있어서 사할린처럼 재미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니와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한인회가 운영하는 한글학교(지도 배영희)에 다니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만 아니라 한국문화, 예술에도 호기심이 많다. 음력 설행사 전날 아니와 한글학교 학생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에서 펼쳐진 동양언어축제에서 <사울링 계단> 스포츠경기에서 1등하여 아니와 학생과 한인회 관계자들은 무척 기뻐했다.

또한 아니와 한인회가 구성한 팀은 오랜간만에 작년 주한인회 회장 미니축구시합에도 참가했었다.

올해 아니와한인회는 주한인회가 주최하는 지원기획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외에도 여러 기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번에 아니와한인회에서 <올해의 여성>시 콩쿠르에 한인회 여성부 담당 최 타치아나를 추천하기로 했다. 그녀는 <여성 리더>부문에서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여름에는 아니와 학생들이 보성을 방문하여 한민족 문화체험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아니와 학생들은 이번엔 벌써 3번째로 보성에 갈 계획을 갖는다고

배영희 부회장이 알렸다. 배 부회장은 사할린국립대 역사학과 출신으로서 한때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운 이후 아니와 학교들에서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친 바 있다. 현재 그녀의 직장(태평양대학교 외국인국가능력실현센터 부관장)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있어서 주말에만 한글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니와 이원도 회장과 배영희 부회장을 간단히 소개하기 위해 필자는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다.

- 인생의 좌우명
- 이원도 회장:** 부탁하지 마 (돈에 대해서)
- 배영희 부회장:** 뿌린 대로 거들 것이다
- 좋아하는 성격
- 이원도 회장:**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 배영희 부회장:** 충성
- 자유 시간에 즐기는 것
- 이 회장:** 에코관광(여행), 스노우보드
- 배영희 부회장:** 독서, 사우나
- 좋아하는 색깔
- 이원도 회장:** 노란색
- 배영희 부회장:** 푸른색(하늘색)
- 50대의 이원도 회장, 40대의 배영희 부회장은 한인회 관계자로서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지만 이분들 같은 사람들에 게 사할린한인사회계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느냐 싶다.

(배순신 기자)

# 이 모 저 모

## 3월에 TV장편영화·드라마 축제를 사할린에서 진행

<고향의 아침> 컷 러시아 TV장편영화제의 진행지로서 극동지역이 선정되었다. 장편영화제는 3월 8일부터 14일까지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러시아 극동개발부, 문화부, 통신부와 출판부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경쟁프로그램에는 2017년 러시아 유명 티비 방송들에서 방영된 장편영화 14편이 참가한다. 영화제 진행 주도와 개최위원장으로서는 유명한 러시아 프로듀서이며 배우이자 감독인 세르게이 지구노브가 맡았다.

축제에 미하일 포레첸코브, 콘스탄틴 라브로넨코, 알레리 토도롭스키, 옐게니 미로노브, 폴리나 쿠제포와, 알렉산드르 아다바쉬얀, 막심 두나옴스키, 옐게니 스티츠킨, 올가 수톨로와, 안나 우콜로와 등 러시아 영화 산업계에 유명한 활동가들이 귀빈과 심사위원으로 참가한다. 티비 장편영화제 개막식은 3월 8일 <크리스탈> 스포츠센터에서 18시에 개최된다.

### Фестиваль телевизионных фильмов пройдет в марте на Сахалине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танет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первого в России Фестиваля телевизион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фильмов «Утро Родины». Он состоится в столиц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8 по 14 март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востокразвития, Минкульты, Минсвязи России и Роспечати.

В конкурсном показ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14 картин, которые вышли в эфире российских телеканалов в 2017 году.

Инициатором проведения и Президентом Фестиваля стал известный российский продюсер, актер и режиссер Сергей Жигунов.

Участниками и гостями Фестиваля станут Михаил Пореченков, Константин Лавроненко, Валерий Тодоровский, Евгений Миронов, Полина Кутепова, Александр Адабашьян, Максим Дунаевский, Евгений Стычкин, Ольга Сутолова, Анна Уколова и другие известные деятели российского кинематографа.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фестиваля телевизионных фильмов состоится в комплексе «Кристалл» 8 марта в 18 часов.

### 세계 해양동물 보호의 날 사할린 주민도 기념

세계 해양동물 보호의 날을 맞이하며 제8회 눈 조각 콩쿠르가 2월 25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에서 진행됐다. 콩쿠르는 <로드니크>환경보호센터의 <자원봉사자의 물결 - 에코>자원봉사자 클럽과 가가린 시 문화휴식공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자유 음악가> 전국 운동의 후원 아래 진행했다.

흥겨운 예술경연에는 가족들과 동아리, 제32호 학교, 제11호 학교, 제3호 학교와 제1김나지아의 학생들로 구성된 팀들 총 120여 명이 참가했다. 많은 참가자들이 미리 준비한 밑그림과 도구들과 그림물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자신들이 기획한 창작을 눈 조각으로 형상화해갔다. 공원 내 아동철도역 건물 뒤에는 물개, 고래, 바다코끼리, 범고래, 거북이와 바다 세계에 사는 다양한 동물들이 만들어져 이내 해양왕국이 형성되었다

주제 적합성, 독창성, 미적 감각에 따라 작품들 중 우수 작품들이 평가되었다. 우수작으로는 제32학교의 두 팀인 <흰 독수리>팀의 <흰 고래는 오호츠크해에 산다.> 조각품과 <초등 1학년생들>팀의 <푸른 고래>조각품, <물개>팀의 <물개>조각품, 제3학교 <눈 조각>팀의 <대기 중>작품과 <돌고래와 인어들>팀의 <바닷속의 세계>작품이 선정돼 수상하게 되었다.

전 참가팀들에게는 상장과 증서와 상품을 시상했

다. 상품으로는 에코가방, 환경보호달력, 기념컵과 제과류를 선사했다. 그리고 <로드니크> 환경보호캠프의 새로운 만남에 초대했다고 <로드니크>센터의 홍보실은 전했다.

### Всемирный день защиты морских млекопитающих отметили сахалинцы

Восьмой конкурс снежных фигур, посвященный Всемирному дню защиты морских млекопитающих, состоялся 25 феврал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го организовал и провел клуб волонтеров "Волонтерская волна — Эко"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Родник" совместно с городским парком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Ю.А. Гагарин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ольные музыканты".

В веселом творческом состяз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20 человек в составе семейных и дружеских групп, команд школ № 32, №11, № 3 и гимназии №1. Многие пришл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ми: с эскизами, своим инструментом и красками, и дружно взялись за создание снежных скульптур, воплощая свои творческие задумки. Вскоре за станцией дет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образовалось целое морское царство: тюлени, киты, морские слоны, касатка, черепаха и другие обитатели подводного мира.

Лучшие работы оценивались за оригинальность, эстетичность и соответствие теме.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две команды школы №32 - «Белый орлан» за скульптуру «Серым китам жить в Охотском море» и «Первоклашки» за работу «Синий кит», «Тюлени» за одноименную композицию, команда школы №3 «Снегострой» за работу «Ждун» и «Дельфин и Русалки» за работу «Подводный мир».

Всем командам вручили дипломы, грамоты и подарки: экосумку, календарь экологических дат, памятную кружку и сладости. А также пригласили на новые встречи в экологический лагерь «Родни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центре «Родника».

(8면에 계속)

### 사할린 통계국: 주요 조사자료 발표

지난 주일에 사할린통계국에서 이리나 램제코와 국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리나 국장은 이날 인구조사, 사할린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 중소기업 사업 조사, 2016년 전국농업조사 결과, 주내 실제 경제 통계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전국 인구조사는 10년에 한번 진행되는데 다음 인구조사는 2020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 인구조사를 앞두고 올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러시아 9개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 중에는 사할린주의 유즈노쿠릴스크시도 포함되었다.

램제코와 국장은 예비평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현재 사할린주에 49만여 명이 거주한다며 이는 2017년 1월 1일 비해 0.7% 더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인구수 증가(총 2000여명)는 주로 외국에서 이민과 관련되어 있었다.

취업 인구는 2017년 말에 사할린주에 노동력은 27만6000명에 달했다. 실업율은 6%이고 취업을 위해 2800명이 등록되었으며 그중 1600명은 공식 무직자로 판명되었다.

기업과 기관들에서 일자리 1만8000석이 공석이라고 제출되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근로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 수준에 관련해 2017년에 총 소득액(예비평가)은 2016년에 비해 감소된 2876억 루블리에 달했다. 2017년에 1인당 경제 소득은 1.2% 감소된 6만700루블리, 소비지출은 4.1% 증가한 3만8500루블리에 달했다.

2017년 ¼분기에 사할린주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1만3617루블리(근로능력자 1만4311루블리, 연금자 1만776루블리, 아동 부양 1만4453루블리)다.

2017년 명목상 평균 임금은 월 6만8827루블리에 달했으며 2016년에 비해 5.5% (실제 1.9%)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석유가스 분야, 재정 및 보험 분야 근로자들은 가장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여 광업 분야 근로자 임금은 주내 평균 임금보다 3.1배 더 높다.

건축, 수산업 업체, 사회 분야(교육, 문화, 스포츠, 보건)에서는 월급이 평균 임금보다 조금 낮은 편이고 상업(도매 및 소매 시장), 차 수리, 호텔과 급식 근로자들의 임금이 평균 임금은 50% 정도 낮다.

이날 램제코와 국장은 2016년 사할린주의 전국농산조사 주요 예비평가도 밝혔다. 전국농업조사는 2016년 7월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통계국은 2006년부터 농업에서 구조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농산업기관들은 2.8배, 농장과 개인 농장은 1.3배 감소되었다고 했다. 동시에 실제로 운영되는 농장은 35%에서 40%까지 증가되었다.

마을 주민의 96%는 가족의 식단 공급을 위해 농사를 짓고 3.6%는 추가로 농가 소득을 얻고 있으며 농민 0.3%만이 농사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축산업계 사료를 위한 농장 면적이 증가하면서 감자와 채소 재배의 농장 면적이 감소되었다고 통계국은 전했다.

축산업 분야에서 소 사육은 6.3%, 돼지는 2.7배, 염소 68.3%, 조류 13.5%, 말 2.3배, 토끼(집) 33.8%, 꿀벌 9.9% 사육이 증가되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배순신 기자)

### 빅토르 최 기념 공연 개최

지난 23일(토) 조국 수호자의 날에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빅토르 최(초이) 기념 공연이 있었다. <키노>록그룹 리더의 노래를 음악 전문가인 왈렌틴 쾨렌갈마예브가 불렀다. <최는 살아있다> 프로젝트는 그가 살았던 톰스크에서 시작되었다. 이 기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노위시비르스크와 빅토르 최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연

할 수 있었다. 작년에 사할린에 정착하게 된 톰스크 음악가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도 <최는 살아있다>공연기획을 추진했다. 마음이 통하는 음악가들 찾아 반년 동안 공연을 준비하여 이날 공연을 찾아온 관객들은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빅토르 최는 1990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소련 록 음악계에서 마지막 영웅이자 전설로 불리는 그의 팬들이 러시아에 아직도 많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류단 사할린 방문

지난 24일(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류단(교수2명, 학생 10명, 단장이재혁 학부장)이 4박5일 일정으로 사할린을 방문했다.



부산외대 이재혁 러시아·중앙아시아 학부장은 사할린

에 온 동기가 3가지라고 했다.

첫째는 문화탐방으로 체호브의 흔적을 찾는 것이고, 둘째는 역사적으로 사할린은 일본, 한국, 러시아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그 전에도 충돌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고, 셋째는 책에서만 보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 수 있었지만 특히 젊은 세대들이 사할린 동포 아픈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젊은들이 직접 가슴으로, 몸으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사할린을 방문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사할린에 있는 동안 이들은 코르사코프 방향의 언덕에 있는 사할린희생동포 조각위령비에 참배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를 찾아 주이산가족협회 박경춘 부회장, 명예회장 이수진,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등을 만나 사할린 동포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할린한인역사 전시관도 돌아보고 문화센터의 복도에 걸려있는 이예식 새고

려신문사 기자의 <귀환>시리즈의 사진들도 둘러보았다. 문화센터 앞 사할린한인희생위령비에 국화를 헌화하며 절도 올렸다.

3가지 방문목적으로 사할린을 방문한 학생들은 3조로 나뉘어 사할린 문화탐방(체호브의 무한도전), 사할린의 역사, 사할린 한인 과거·현재·미래로 연구를 하여 방문 마지막 날 28일(수) 사할린국립대에서 발표회를 가졌다.

세미나는 한국 측에서 이재혁교수, 사할린국립대 측에서는 엘레나 이콘니코와 교수가 참석했다. 마지막 모임에는 사할린국립대 국제 교류·학문적 이동성 국장 빅토르 코르수노브 교수, 사할린국립대 임 엘위라 문헌·역사·동양학 대학 학장, 새고려신문사 배 빅토리아 사장을 비롯 사할린국립대 교수와 학생들이 참가했다.

한국에서 연구를 시작하여 프레젠테이션(PPT)의 대부분을 준비한 한국학

생들은 사할린에서 파악한 내용들을 보충하여 프로젝트들을 소개했다.

발표자들은 자신의 사할린 소감도 이야기했다. 학생들은 사할린에 와서 많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할린 측 참가자들은 한국 학생들이 사할린과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현지인 보다 더 자세히 사할린역사를 아는 데에 놀라워 했다.

이콘니코와 교수는 좋은 교수법을 공유하는 데 대해 한국교류단에 감사인사를 했다.

한편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에는 해마다 70명 정도가 입학하고 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협력협정을 체결한 사할린국립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며칠 전에 1년간 유학으로 부산 외대에서 학생 2명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기자)

### 재외동포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및 졸업생 환송회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연천군 소재의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제20기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및 졸업생 환송회'를 개최했다.

동 행사는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국내 수학 기회를 얻은 39개국 110여명의 장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장학증서 수여식, 졸업생 논문발표, 장학생 선·후배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 및 안정적인 모국 유학 생활을 돕기 위한 학사지침 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한우성 이사장은 특강에서 '아름다운 영웅 김영욱'을 주제로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갖춰야 할 리더십에 대해 설명했다. 또 다른 강연자 최태성 EBS 한국사 강사는 '역사 속 인물의 삶과 업적 조명'을 주제로 강의 후, '한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토크콘서트 주제로 장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동포 장학생들이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졸업 후에도 동기·선후배 간 교류를 지속해 서로 돕는 네트워크를 구축해달라"고 말했다.

### 그린 작가의 책들에는 실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주 사할린주 도서관에서 작가 블라지미르 그린과의 만남이 있었다. 문학의 밤은 <작가의 초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1959년 사할린 출생인 블라지미르 그린은 보안국 장교였다. 그의 마지막 직위는 사할린주보안국 부국장이었다.

독자와의 만남에서는 그는 자신이 출간하게 된 책 7권을 쓰게 된 배경과 동기를 간단히 설명했다. 그의 작품에는 꾸미지 않은 삶의 현실이 그대로 그려져 있다.

이날 배 빅토리아 새고려신문사 사장은 카미시스카 한인살인사건을 내용으로 한 첫 중편소설 <오늘도 아물지 않는 쓰라린 상처> 한국어 번역을 본사 고 배영숙 선생, 수정과 교열에 석혜경 선생, 본문 입력을 신정자 씨가 맡았다고 알렸다. 그리고 카미시스카 학살사건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이 책을 요청한 바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러시아작가동맹원 그린 작가를 베테랑회, 학교와 문화기관 직원, 동료 등이 축하했다.

문학의 밤은 저자의 사인회로 마무리했다.

다음 <작가의 초상화>프로젝트의 소개 인물은 러시아작가동맹 사할린지부장 니콜라이 타라스브 시인이다. 그와의 만남은 3월 3일(토) 오후 5시 30분 사할린주도서관에서 개최된다.

(본사기자)

### 재외동포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및 졸업생 환송회 개최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поблагодарил Россию за участие в Олимпиаде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 поблагодарил Россию за участие в Олимпиаде-2018 и высказался в поддержку наших атлето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заявление лидер Кореи сделал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российской делегацией во главе с помощником президента РФ Игорем Левитиным. Как сообщают местные издания, 20 февраля Мун Чжэ Ин принял российскую делегацию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Я, как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нимающего Олимпиаду, организовал эту встречу, чтобы выразить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вашей стране за участие в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Несмотря на сложную ситуацию, в которой вы оказались, вы направили на Олимпиаду большую делегацию атлетов, за что я хотел бы еще раз искренне поблагодарить", - заявил он, попросив передать эти слова президенту РФ Владимиру Путину.

Президент РК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дружба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продолжает крепнуть, чему также сильно способствует и Олимпиада. "Я надеюсь, что дружба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наших двух стран станет еще крепче. Это позволит усилить базу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отношений", - добавил Мун.

## ИЗ ПУСАНА НА САХАЛИН

Пять дней продлилось знакомство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 студентов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с Сахалином. Целью визита на остров стало проектное задание по изучению Сахалина со времен каторги и до наших дней. По словам возглавляющего корейскую группу профессора Ли Дже Хёка, пол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России в целом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именно в провинции, жизнь людей в небольших местах лучше демонстрирует национ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россиян. К тому же Сахалин интересен своим историческим прошлым, примечателен поездкой на остров Чехова и созданной по итогам путешествия книги.



Приехавшие студенты вошли в три группы, каждая из которых исследовала свой аспект в сахалинской тематике. Одни ребята ориентировались на изуч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с середины XIX века до конца XX столетия на Сахалине, другие собирали материал по зарубежн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третьи сосредоточили свое внимание на месте творчества А. П. Чехова в жизни островитян.

Все, впервые приехавшие на Сахалин студенты, в разной степени владеют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кто-то находится в самом начале постижения нового языка, кто-то уже прежде бывал в России и усовершенствует свои знания. Однако все ребята показали очень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самоорганизованности и умения работать в команде.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в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усанских гост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казали российские студенты-волонтеры. Так, Анна Кукова, изучающа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СахГУ, с готовностью помогала группе по сбору «чехов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А участники этой группы И Хё Мин, Юк Эри и Чон Хёк Ук какую-то часть информации по наследию Чехова нашли еще в Корее, 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сетили музей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и зал Чехова в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е, сделали заготовки для видеоподготовки.

Сахалин запомнился корейским студентам открытостью людей и готовностью островитян прийти на помощь. Многие студенты признавались, что до поездки в Россию они почти ничего не знали о каторге или о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х. Сейчас же возникло желание изучать эти и другие темы. А это значит, что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пусанские студенты могут вновь вернуться в Россию.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русской и  
зарубежной литературы СахГУ

## V съезд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25-26 февраля 2018 года в г. Симферополе состоялся всероссийский съезд корейцев. Открытие съезда началось с исполнения гим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чётные гости Съезда, Гафаров Э.С.,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Госсовета Республики Крым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тношениям, его заместитель Ильясов Р.И., Лукашев И.М.,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 Симферополя, Билялов Эскендер, член Совета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тношениям и другие, выступили с приветствиями и поздравлениями в связи с началом работы Съезда. Были оглашены приветствия в адрес участников Съезда от Заместителя Руковод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М. Магомедова, Чрезвычайного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ос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 Юн Гын, Руководителя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России И.В. Баранова.

Делегаты и участники заслушали отчётный доклад о работе ООК за прошедшие 5 лет, отчет ревизионной комиссии, обсудили изменения в Уставе ООК, перспективы деятельности. Съездом был утверждён новый состав Совет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ООК). На очередной срок председателем ООК вновь избран В.И. Цо. Генера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и членом Правления ООК назначен В.Н. Ки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ребованиями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Ф, функции Правления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ООК разделены. В связи с этим на Съезде создан новый состав Совета ООК из руководителей всех входящих в ООК организаций, а председателем Совета ООК избран М.И. Ким. Избран также новый состав Правления ООК в количестве 7 человек.

V съезд ООК работал в судьбоносный период России. Считанные дни остаются до выборов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торые состоятся в день четвёртой

годовщины возвращения Крыма в Россию. Символично, что столь важное событие в жизни корейцев – V съезд ООК – произошло, именно в Республике Крым!

*После Крымской войны в середине XIX века началась вербовка населения полуострова для переселения на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Через длительные морские расстояния новопоселенцы достигали восточной окраины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И примерно в это же время началось доброволь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земли, в «русские пределы». И с тех пор их судьбы стали общими на новы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землях России. Сложная история и судьба российских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тесно связана с судьбами и други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В отчётном докладе прозвучало, чт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ОК объединяет 45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более 50 отделений ООК, местных НКА, ассоци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Основ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ООК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ставом, задачами и планами работы, которые ставит современная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стране. Среди них главными являются усил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достижение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содействие укреплению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гармониз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обеспечение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исторических традиций, солидарности и взаимопомощи, дружбы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В числе важных юбилей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вязанных с празднованием 150-летия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 проведение в 2014 году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Корейцы и православ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импозиума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СНГ: общественно-географический синтез за 150 лет» в Новосибирске.

*(Продолжение на 6-ой стр.)*

## Силой выдворять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из КНДР в рамках санкций ООН с Сахалина не планируют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 2018 году не приедет ни одного трудового мигранта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агентстве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Отказ от привлечения рабочей силы из КНДР продиктован резолюцией ООН об ужесточении санкционного давления на республику, принято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и этом особой трагедии из прекращения поток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мигрантов в области сегодня не делают — их вклад в общий баланс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оставался не очень значительным.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работники из КНДР занимали значительную долю квоты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формируемую ежегодно россий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в целом среди привлечённых из-за рубежа работников на них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риходилось не более 8%, а в 2017 году — вовсе 6%.

"На 2017 год квота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а определе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основании предложений федеральной и областной комиссий по вопросам привлечения 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размере 2136 разрешений на работу, что составляет 74%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квоты (2882), — говорится в ответе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 Квота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иностранной рабочей силы в 2018 году без работников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пределена в размере 378 разрешений на работу. Предложение по корректировке квоты 2018 года сформировано с учетом резолюции, принятой Советом Безопасности 11 сентября 2017

года, в том числе с учетом количества разрешений на работу гражданам КНДР, окончательно оформленных до принятия указанной резолюции. Предложение по корректировке квот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ходится на рассмотрении федеральной комисси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доля корейских рабочих (в основном они заняты в строительной сфере) не очень высока, перед рядом работодателей все-таки встает вопрос о замещении выпадающей рабочей силы — сейчас,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по труду, они ищу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менить выпадающие ресурсы из других источников. При этом, видимо, сахалинским сотрудникам предпочтение отдано не будет — кроме них на освобожденные гражданами КНДР места претендуют жители ближнего зарубежья, а также Китая, Малайзии и Бангладеш.

Вместе с отменой "рабочих виз"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НДР перед российскими силовыми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ведомствами стоит вопрос о судьбе уже оказавших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людей. Согласно резолюции ООН, выслать граждан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родину необходимо в течение 24 месяцев (то есть до конца 2019 года). В управлении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преемник упраздненной в 2016 году Федеральной 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сахалинского УМВД никакой информации о специа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 высылк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НДР не сообщили, перенаправив вопросы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В сахалинском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е МИД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Sakh.com сообщили, что к вопросу необходимо подходить осто-

рожно и что сегодня не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особых мер по принуждению граждан КНДР к выезду за пределы страны.

— По завершении контрактов они должны завершить пребывание в России и выехать домой. Не думаю, что с этим будут проблемы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НДР хорошо себя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законопослушности, у них нет нарушений порядка пребывания. Так что мы ожидаем, что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они в рабочем порядке вернутся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 замет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Владимир Носов.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ввел "миграционные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декабре 2017 года. Очередное ограничение призвано лишить страну одного из основных источников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ы.

Сегодня в России существует две "системы" привле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к различным работам — патент, который оформляют жители ближнего зарубежья, которым для въезда в Россию не нужна виза, и квота, необходима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визовых" стран. Последний механизм организации трудовой миграции находится под тщательным контролем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квоты для каждого из субъектов страны ежегодно формируются на основании потребностей, предоставленных местными властями, 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еуклонно сокращаются. Зачастую,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Минтруда, в случае приглашения работников по квотам речь идет не о привлечении сотрудников на различны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с низкой квалификацией, а о редких или специфических профессиях,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торых внутри страны недостаточно.

**(ИА САХКОМ, Кирилл Ясько)**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Мун Чжэ Ин: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ы СК важен диалог

23 февраля на ужине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организованном в честь визита в РК делегации США во главе с советником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ванка Трамп, глава РК Мун Чжэ Ин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диалога. Он провёл с гостьей закрытую встречу, которая длилась 40 минут.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зидент указал на то, что межкорейский диалог и диалог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е могут проходить отдельно. В их параллельном продвижении важным является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еула и Вашингтона. Мун Чжэ И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РК и США воспользуются редким шансом и вместе выполнят историческую миссию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оторую не удавалось реализовать последние 25 лет. На ужине, состоявшемся после встречи, президент отметил оживлённый межкорейский диалог по случаю участия Севера в Олимпиаде, указав, что он вносит вклад в сглаживание напряжённости и улучшение отношений Юга и Севера. На это Иванка Трамп заявила, что совместные усилия РК и США по оказанию максимального давления на СК с целью разрешения ракетной и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 Пхеньяна принесли эффект.

## Зим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в Пхенчхане завершились

25 февраля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Пхенчхане. На ней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советник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Иванка Трамп,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ЦК ТПК,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ом Единого фронта Ким Ён Чхоль и другие.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зрители увидел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популярных звезд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страды, в частности, EXO. Пхенчханская Олимпиада 2018, проходившая с 9 по 25 февраля, стала самой масштабной в истории. В ни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2.92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92 стран мира, которые разыграли 102 комплекта медалей. Шесть стран впервы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зимних Играх. Это Нигерия, Эритрея, Малайзия, Сингапур, Эквадор и Косово. Особо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статус Олимпиады как мир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ысказывались опасения по поводу открытия Игр, учитывая повышенную напряжённос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з-за ядерной угрозы Севера. Однако в итоге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 участии в Олимпиаде 46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что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ило атмосферу Игр. Юг и Север сформировали единую женскую команду по хоккею. По итогам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2018 в копилк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борной пять золотых, восемь серебряных и четыре бронзовые медали в шести дисциплинах. РК заняла по числу медалей седьмое место на Олимпиаде. Следующие зим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пройдут в 2022 году в Пекине.

## США ввели крупнейший пакет санкций против Пхеньяна

23 февраля во время пребывания в РК Иванки Трамп, старшей дочери главы Белого дома, занимающей должность его советника, США представили самый большой пакет санкций против Пхеньяна, из когда-либо вводившихся Вашингтоном. В пятницу минфин США добавил в санкционные списки 27 организаций, 28 судов и одно физическое лицо. Среди них девять судовых компаний и девять судов, принадлежащих Китаю, Панаме, Сингапуру, Гонконгу и другим третьим странам. Указанное физическое лицо - гражданин Тайваня, который,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имеет отношение к незаконным операциям с нефтью и углём. Всем объектам санкций закрыт доступ к американской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е, а также запрещается работать с США.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Стивен Мнучин заявил о намерении оказывать давление относительно всех незаконных средств, через которые Север пытается обойти санкции. По его словам, Иванка Трамп заранее сообщила президенту РК Мун Чжэ Ину о новых санкциях. Они являются выражением готовности США продолжать давление на Пхеньян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он не вернётся к переговорам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 В марте РК и США обсудят вопрос расходов на содержание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йск

Первая встреча в рамках 10-х по счёту переговоров РК и США по вопросу определения расходов на содержание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йск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ожет состояться 5 марта или чуть позж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К. Южнокорейскую делегацию возглавит представитель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Чан Вон Сам, который ранее занимал пост посла РК в Шри-Ланке. Со стороны США в переговорах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омощник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екретаря Тимоти Бетс.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отвечающий за переговоры, указал на то, что наибольше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трём вопросам. Это определение общей суммы расходов, длительность соглашения и меры по улучшению нынешней системы разделения расходов. Объём расходов, который берёт на себя РК, в этом году составил примерно 890 млн долларов.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неоднократно указывал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величения расходов союзников на содержание американских контингентов, обеспечивающих их безопасность. В этой связи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затраты РК в этом вопросе могут значительно вырасти. (RKI)

## Шансы на победу: способствуют ли квоты росту 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лияния женщин в Южной Корее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 6)

### Успешное лобби

В результате непрерывных усилий и лоббистской работы депутатов в парламенте (и женщин, и мужчин) в 2000 году была установлена 30-процентная квота для женщин, выдвигаемых от поли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Отныне партии Южной Кореи, участвующие в выборах в национальный парламент и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собрания провинциальн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ровне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ях обязаны включать в свой список кандидатов 30% женщин. Позже квоту увеличили до 50%, а также ввели требование к списку кандидатов от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на выборах провинциального уровня: каждая вторая фамилия в нем должна принадлежать женщине,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женщин можно поставить в конце списка, и при распределении мест они могут не войти в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й орган власти. (Такая практика существует в ряде стран, где применяются квоты на выборах по пропорц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е.)

С 2010 года стали действовать квоты на выборах в одномандатных округах.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 выбо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участвующие в выборах провинциально, муниципально и уровне или в выборах в национальный парламент, в одномандатных округах должны выдвинуть не менее 1 женщины,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ни один из их кандидатов не буде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В Южной Корее действует мажоритарно-пропорциональная система выборов. В парламент, например, по одномандатным округам избирается гораздо больше депутатов (253 из 300), чем по партийному списку. Так что введенные квоты не могли кардинально изменить ситуацию с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женщин в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власти. Тем не мене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выборами 1996 года, число женщин-депутатов в парламенте

16-го созыва (2000 год) возросло почти вдвое — около 6% против 3%, а в 2016 году в парламенте 20-го созыва достигло уже 17%.

Важно, что постоянно росло число женщин-кандидатов, баллотирующихся в одномандатных округах, на которые квоты изначально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лись. Если в 2000 году доля таких кандидатов составляла немногим более 3%, то в 2008 году — уже почти 12%, при этом вдвое выросла их избираемость. На последних выборах в парламент в 2016 году женщин в одномандатных округах было выдвинуто около 11%, то есть даже меньше, чем в 2008-м, но избираемость увеличилась в два раза — 10,2% против 5,7%. Значительный рост избираемости женщин наблюдается и на выборах в собрания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ровня (город, уезд, район). Так, в 2014 году женщины составляли уже четверть депутато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собраний, притом, что еще в 2002 году их было чуть больше 2%.

Чтобы стимулировать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выдвига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женщин в одномандатных округ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няло закон, по которому партии, выдвинувшие на этом уровне более 30% женщин, получали от государств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предвыборную кампанию. Мягче стали условия дл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ом кандидатов-женщин: сейчас поли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достаточно выдвинуть более пяти женщин на выборах в одномандатных округах по всей стране,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 Первые итоги

Кто-то может сказать, что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цифры вряд ли могут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ть о расширени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лияния женщин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днако совершенно бессмысленно противопоставлять «количество» «качеству» — это взаимосвязанные явления. Введение квот для женщин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ло бы невозможно

без активной поддержки со стороны ведущ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и женских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Квоты были введены тогда, когда в обществе уже произошли определенные ценностные изменения: претензии женщин на равн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с мужчинами во власти перестали восприниматься как проявление у них психическ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ил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го отклонения. Чем больше женщин стало выдвигаться на выборах, тем выше становилась их избираемость, а вместе с тем и их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В условиях сравнительно высокой прозрачности корейских выборов, их демократичности, женщины могут составить серьезную конкуренцию кандидатам-мужчинам. Их шансы на победу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уже определяются не столько гендером, сколько партий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ью, регионализмом и личной биографией. До введения квот было иначе. Он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несли свой вклад в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как равноправных субъектов «политического поля», способных принима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решения и нести за них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С точки зрения роста 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лияния женщин внутри партий довольно символическим является избрание Чху Миэ лидером Совмест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ведуще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лы Южной Кореи, Сим Санджон — лидером Партии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выдвинувшей ее кандидатуру н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 2016 году. Обе женщины являются депутатам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и фигурами в современн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ке. Хотя еще рано говорить о 30-процентном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е женщин в политических институтах страны, механизм расшир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ого участия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посредством квот оказался достаточно эффективным.

Наталья Ким,  
историк-востоковед

перелетные люди

ГОСТИНИЦА ГАГАРИН

горнолыжный сезон на Сахалине

супер скидка на проживание для всех лыжников и сноубордистов!

15%

с 01/01 по 31/03

реклама

СКИДКА ДЕЙСТВИТЕЛЬНА ТОЛЬКО ПРИ БРОНИРОВАНИИ ПО ТЕЛ.: 8(4242)498-400 И ЧЕРЕЗ E-MAIL: RESEPTION@GAGARINHOTEL.RU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Объявление

Женщина (65 лет) желае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мужчиной 1-ого поколения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 р.) без вредных привычек, для совместного выезда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Контактный тел.: 89147605311, 89242804045

## В эт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переведут на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стандарт 52,4 километра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Новая рельсошпальная решетка будет уложена на переездах западного побережья острова между Чеховым, Новоселово и Томари, а также от Ильинского до Арсентьевки. Помимо «перешивки» на участках дороги от Арсентьевки до Буюклы предстоит построить 32 новых моста и реконструировать ряд станций. Продлятся работы с 25 апреля по 1 октября.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на встрече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 с коллектив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Напомним,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филиалом ОАО «РЖД» -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ой. Предмет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 совместная модернизация существующей на острове узкоколейной стальной магистрали. Ее «перешивка» на общесетевой стандарт началась в 2003 году. Уже сегодня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о почти 626 километров главного пути из 806, сооружено 64 новых моста и более 80 водопропускных труб.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ить

переустройство дороги планируется в 2020 году.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позволит отказаться от приобретения редкой и дорогостоящей узкоколейной техники, а также перестановки колесных пар. Сегодня при доставке вагонов с материка на остров и обратно без этой затратной операции не обойтись. Переход на широкую колею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ретать новые комфортабельные пассажирские вагоны, увеличит объемы грузовых перевозок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За счет этого снизится нагрузка на автомобильные дороги области, повысится безопасность движения.

- Немаловажно, что сформированные планы «перешивки»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Сахалина обеспечены финансированием. Только в этом году компания «Российские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выделяет на данные цели около 17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Можно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большой коллектив сахалинских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ов - а это около 3,5 тысячи человек - будет обеспечен работой, - отметил на встрече Олег Кожемяко. -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окажут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ам необходимое содействие в реализаци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проектов. В частности, мы готовы направить средства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новых комфортабельных пассажирских вагонов.

Переустройство стальной магистрали входит в состав более крупного инфраструктурного проекта по созданию транспортного перехода через пролив Невельского, который в перспективе может связать остров с материком.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его проработкой сейчас занимаются несколько федера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Ведущая роль отведена ОАО «РЖД». В 2018 году компания намерена сформировать техник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обоснова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ерехода, а впоследствии - приступить и к проектированию.

По мнению Олега Кожемяко, создание перехода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частью страны поможет в полной мере раскрыть экономи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островной экономики. Область получит надежное транспортное сообщение с «большой землей». Как следствие - увеличится объем грузовых потоков, а товары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станут более доступными, что отразится на качестве жизни люд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V съезд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

Состоялись конференции, круглые столы и в других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Ростове на Дон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Оренбурге, Хабаровске, Владивостоке. Завершились да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Форумом «Россия - Родина моя» в Москве, торжественным собранием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и гала-концертом мастеров искусств 4 октября 2014г. Мероприятия включали в себя презентации, фестивали, кинопоказы, концерты, показы мод, выставки картин, фот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проведение спортивных состязаний, дегустации блюд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и т.п. Были осуществлены издания книг, альбомов, выпуск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х и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фильмов,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ные, молодежные и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Автопробег Россия-Корея- 2014, посвященный 150-летию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и 13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с маршрутом через Россию, Среднюю Азию, Казахстан,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позволил познакомиться всех об истории, судьбе корейцев одной из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х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Состоялись церемония возложения венков к памятнику Неизвестному солдату и Гала-концерт в Москов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музыкальном театре фольклора «Русская песн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Н.Г. Бабиной. Здесь были оглашены приветствия от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 Путина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А. Медведева.

В 2015г. ООК осуществила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70-летию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гг., 11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дважды Геро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Ким Пен Х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приняли в значимых акциях, посвященных воссоединению Крыма, митингах Антимайдан, Дню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В 2016 и 2017гг.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шествиях Бессмертного полка, общероссийских праздниках Дня России, Навруз, Сабантуй, Акатуй, Гербер, Самоварфест и др. В парке «Красная Пресня» впервые в Москве провели масштабный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ный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ения предков Чусок. В 2017 г. в Московском Доме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состоялась конференция «1937 год: прошлое, 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Корейцы как часть Русского мира». В Москве, к 20-летию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31 мая 2017г. состоялась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ские масс-медиа: прошлое, настоящее, будущее» с участием всех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ских газет. Ярким гала-концертом во Дворце пионеров на Воробьевых горах завершился 1 июня 2017г. детский фестиваль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

«Мой дом - Москва». С сентября 2016 года в этом Дворце прошли десять дней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 греческой, груз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армянской, казахской, белорусской, гагаузской, татарской, азербайджанской, а также день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казачества. В Южно - Сахалинске 19 июня прошла XVI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Россия - Корея - СНГ, подготовленная корейским научным обществом АНТОК (президент Тен Э.Б.). 25 июня 2017 г. в Москве, в Центре культуры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оссийском Дом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имени В.Д. Поленова, Молодежное движение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ООК, представили культуру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15 сентября 2017г.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состоял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импозиум «1937 год: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 прошлое, 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посвященный 80-летию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вы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Среднюю Азию и Казахстан.

Многие годы Славяно-корейское общество объединяет православных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Действует оно в Москве при Заиконоспасском ставропигиальном мужском монастыре с 2001г., по благословению наместника монастыря архимандрита Петра (Афанасьева). Оно ставит своей целью просвещение светом Христовой веры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Руководителем общества является священник Заиконоспасского монастыря Александр Сон. Также здесь образован Славяно-корейский молодежный центр (СКМЦ) - объединение позитивных, инициативных и творческих молодых личностей. Они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ются, пропагандируют здоровый образ жизни, участвуют в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Центра: образование, волонтерство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о), культура, социальное подвигничество, а также духовное просвещение.

У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первом плане остается духовное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е начало и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они пребывают в определенном «выигрыше». Мерилом же бытия считается образование,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соб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познания окружающего мира, духовного насыщения. Для корейцев, приоритетны такие духовные основы, как ученость,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изобретательность, интеллект. Вот поэтому ООК издаёт книги в серии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ыпускает кино и видеофильмы, оказывает помощь творческим коллективам, молодёжи, юным дарованиям, участникам конкурсов и смотров, оказывает поддержку ветеранам (в частности в получении статуса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приобретения компьютер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ОК постоянно участвуют в ежегодном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м диктанте и других акция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асштаба. Только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2017 г. прошли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о летчике-испытателе Герое России Олеге Цой «За гранью возможного» (к 73-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Московски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 стадионе ЦСКА, 12 июня 2017г. Участие студентов, аспирантов и молодых ученых во всемирном Форуме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Yung Generation Forum). 4-8 июля 2017 г. Сеул,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Московски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Чусок, Москва,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сентябрь, октябрь. Участие в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80-летия прожизания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е и Узбекистане, октябрь - ноябрь. Мероприятия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потомков героев антияпонской борьбы. Организация поездки и встречи в КНР, установление культур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с китай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Активисты ООК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и в общероссийских акциях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празднование Дня Победы, Дня России, Шествие по Тверской, мероприятия в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и другие.

ООК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о многих значим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инициирова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АДН России, Мин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Минобрнауки России, МИД Росс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Москвы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ФНКА и НОО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Полагая, что единство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зависит от развития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жэтнических и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ООК придаёт этому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Здесь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копили позитивный опыт организаторской и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работы. Достижения отмечены большим числом награждённых активистов ООК, поощрениями от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субъектов РФ, общероссийски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наград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Председатель ООК Цо В.И.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образования в 2012г. Совета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м отношениям входит в его состав.

Единство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зависит от развития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жэтнических и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ООК придаёт этому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Здесь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копили позитивный опыт организаторской и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работы. Достижения отмечены большим числом награждённых активистов ООК, поощрениями от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субъектов РФ, общероссийски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наград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Фактически, ООК, руководители отделений ООК, местных НКА,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ассоциаций обладают компетентностью в сложной современной политике, в различных общ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итуациях.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олит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характерен и дл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орей-

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 регионах, и для корейцев, занятых в центральных и в региональных, местных органах власти.

Предстоит также наладить конструктив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ассоциациями, фондам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о расширению взаимных связей в об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ых,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спортив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обменов. Без участ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невозможно полноценное овлад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м языком, культурой и искусством, подлинными народными традициями, обычаями, играми и т.п. В июне 2017 год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делегации ООК с Ассоциацией Янбе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ии Китая были подписаны Соглашение о взаим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этом году мы ожидаем ответного визита в Москву кита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Стратег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ООК нацелена на всё более активную насыщенную, продуктивную работу. Также многое ещё предстоит сделать, чтобы россияне хорошо знали о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ах и относились к ним с пониманием и уважением. Прежде всего, как к его активным гражданам, являющимся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единой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и.

Участники Съезда обсудили проект Решения V съезда ООК.

1. Признать работу ООК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й.  
2. В целях консолидации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смотрения их вступления в ООК.

3. Усилить работу с корейскими молодеж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4. Наладить конструктив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ассоциациями, фондам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о расширению взаимных связей в об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ых,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спортив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обменов.

5. Предложить вновь избранному руководству ООК обратиться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 подготовке и принятии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и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 аналогии с российско-германской программ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доработать данное Решение с учётом поступивших предложений.

Делегаты признали работу ООК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й.

26 февраля 2018г. в пресс-центре МИА «Россия сегодня» в Крыму (Симферополь) состоялась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на тему: «Корейцы в семье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в которой участвовали: Цо Василий Иванович, председатель ООК, член Совета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м отношениям, Чен Валентин Сергеевич,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а также Ким Владимир Алексеевич,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НКА корейцев Республики Крым.

**Ким Моисей,**  
советник председателя ООК

특집

3·1절 기념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되새겨야

3·1절을 며칠 앞두고 있다. 공휴일이어서 좋기는 하지만 3.1절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민족에게는 뜻 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식민통치하에 나라 잃은 설움을 이겨내고 독립을 선언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식민통치를 배척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독립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로써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이 3·1절이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의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기념하고 공휴일로 정했다.

이날은 국가기념일로 순국선열들을 추모하고 애도의 묵념을 올리며 각종 기념행사를 치른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조센징이라고 멸시하는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재일 교포들도 있다고 한다. 이를 보더라도 나라 잃은 설움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일제강점기 때의 모진 삶을 견뎌낸 선열들을 생각하며 3·1절의 의미를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한다.

경북 울진군에서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의 위업을 기리고 고귀한 3·1 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군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3.1절 기념행사를 매년 원남면 매화리 기미독립만세공원에서 개최하고 있다.

1919년 3월 1일 과고다공원에서 시작된 3.1운동은 교통·통신 불편과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질 때, 경북 울진에서도 4월 11일 매화장터에서 500명, 4월 13일 북면 흥부장터에서 1,000여 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들고 곳곳에서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4월 12일 울진장터에서도 계획했으나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포항시도 해마다 북구 송라면 대전리 두곡 숲에서 3·1절 행사를 갖는다. 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말을 탄 일본 헌병과 순사 복장을 하고 '만세'를 외치는 시민과 대치했던 당시 상황을 재현하면서 그 날을 되새긴다. 송라면 대전리는 이준석 의사 등 14명이 3·1만세운동을 한 곳이다. 이 의사는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이 전국에서 불길처럼 번지자 청하 출신의 9명과 함께 3월 22일 오후 1시 청하 장날에 모인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의사 등 23명은 일본 헌병에게 체포돼 투옥됐고, 윤도치 의사는 옥사했다. 같은 해 3월 27일에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다시 만세운동을 펼쳤다.

지금의 50대 중반 이상은 모두 겪은 일이지만 3·1절이 되면 학교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여 3·1절 노래를 부르며 순국선열의 고귀한 넋을 기렸다. 학교나 직장에서는 3·1절 행사만은 꼭 시행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경일보, 2018.02.25)

서울광장 꿈새김판에 "내 마음은 지지 않아"

서울광장 꿈새김판이 3·1절을 맞아 26일부터 3월 말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동참을 유도하는 메세지로 새롭게 단장된다. 꿈새김판은 서울도서관(옛 서울시청) 정문 위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명예회복을 염원하는 취지로 '내 마음은 지지 않아'라는 문구와 함께 이미지를 담은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내 마음은 지지 않아'는 지난해 12월 작고한 위안부 피해자 고송신도 할머니가 생전에 자주 쓴 말이다. 송 할머니는 지난 1993년 일본에 사는 한국인 피해자로는 유일하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청구 소송을 낸 인권운동가다. 10년간 법정투쟁 끝에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됐지만 법정을 나오면서 "재판에서 졌지만 내 마음은 지지 않아"라고 밝혀 강한 인상을 남겼다.

입을 다문 채 미소를 잃지 않는 그림 속 소녀는 이런 송 할머니의 의지를 표현한다. 또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총 239명 중 30명의 생존자만 남은 절박한 현 상황에 피해자의 아픔을 잊지 말고 역사를 바로 잡아달라는 무언의 호소이기도 하다.

시는 역사 문제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한다.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하는 캠페인이 소셜 벤처 '마리몬드' 주최로 3월11일까지 카카오

스토리펀딩을 통해 펼쳐진다. 또 SNS에서는 피해자를 기억하고 함께 하겠다는 의미의 릴레이 손 글씨 캠페인도 진행된다. 28일에는 서울시 공식 팟캐스트 '정영진·최옥의 걱정말아요 서울'에서 역사연구가 라영환씨가 초대손님으로 나선다.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서울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 유네스코 등재사업 등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3·1절 당일에는 시민청에서 '이 시대의 3.1운동'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가 열린다. 여섯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꽃으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고 할머니들의 인생역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어폴로지'도 무료로 상영한다. 이와 함께 3·1절을 기념하는 클래식과 뮤지컬 갈라 특별공연이 활짝라운지에서 펼쳐지고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태극기 바로 그리기 행사도 열린다.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3·1절 서울광장 꿈새김판과 다양한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세계 최초 위안부 영상 발굴 등 서울시의 역사 바로 세우기 노력의 연장선에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물론 시민과 함께 역사 바로 세우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2018.02.25)

99주년 3·1절, "알려주세요. 우리의 의미를"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의 마음 속에 응어리진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99주년 3·1절에 즈음해 우리 지역을 비롯한 전국 '평화의 소녀상'들이 아픈 기억을 치유하는 작은 꽃이 될 수 있을까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26년이란 긴 시간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국의 소녀상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염원 속에 2011년 겨울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지요. 서울에서 뿌리내린 소녀상은 평화의 줄기를 타고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전에도 닿았지요.

대전시청 맞은편에 자리 잡은 저는 2015년 3·1절, 대전시민의 응원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후 3년이란 시간동안 인권 존중과 평화를 소망하는 대전시민의 마음은 한결 같았습니다. 주변을 오가는 시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아름드리 꽃을 놓아줬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목도리와 장갑도 전해줬습니다. 그 마음의 밑바탕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역사의 아픔을 공유하는 정서 아닐런지요. 그 따뜻한 '잊지 않음'은 차가웠던 계절을 건너온 마음을 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수요일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소녀상 곁에 모입니다. 한 주, 두 주, 어느덧 횡수로 천 번 하고도 삼 백여 번이 더해졌습니다. 할머니들과 시민들은 수요집회를 통해 일본의 진실된 사죄를 요구했지만 그 오랜 바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적반하장 격 태도로 험난함의 연속입니다.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 과정도 그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조건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우리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그러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은 자란다는 생각입니다. 세종과 충남 서산 시민공원, 천안 신부공원, 아산 신정호수 공원, 논산 시민공원, 홍성 홍주성 부근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저의 친구들이 탄생하는 것은 그 작은 방증이 아닐까요. 전국의 소녀상은 60여 곳, 해외까지 하면 70여 곳에 제 친구들이 세워져 아픈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비롯한 소녀상이 있는 곳곳에서 수요문화제가 열리는 등 시민의 따뜻한 마음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1절에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소중한 누군가에게 우리의 의미를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 작가는 말합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왜 3·1운동을 기념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방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왜 속세로 남았는지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평화의 소녀상을 보며 인권이 존중되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부디 우리를 단지 하나의 상(像)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으로 기억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금강일보, 박진성 기자, 2018.02.25)

[우리말로 깨닫다]

말을 놓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놓다>의 반대는 <잡다>일 겁니다. 잡는 것은 집착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조금 더 세계 말하면 붙잡는 것을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꼭 쥐고 있는 것을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집착의 종류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잡고 있나요? 꼭 쥐고 있을 때는 빈틈도 공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답답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다>는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제일 대표적인 우리말 표현은 <마음을 놓다>일 겁니다. 안심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긴장하고 있던 마음을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걱정이 많을 때 우리는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심장이 오그라든다는 말도 합니다. 긴장하는 거죠.

<마음을 내려놓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더 구체적으로 욕심이나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 순히 놓을 뿐 아니라, 아래로 내려놓는 것이니 체념할 것은 체념하는 모습입니다. <체념>은 포기나 아니라 내 욕심을 거두어들이는 느낌의 단어입니다. 죽한 줄 아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언지 살펴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할 때는 자신의 명예나 권력, 부 등 그동안 집착했던 세상의 일을 놓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좋은데, 자신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제발 목숨은 내려놓지 마세요. 결심을 말할 때 <죽어도>라는 표현은 삼가기 바랍니다. 목숨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마음을 잡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요. 어디에 둘 데 없는 마음을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나쁠 리 있겠습니까? 마음을 잡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마음을 잡는 것에 반대는 마음을 놓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마음을 풀어트린다는 말이 반대가 되겠네요. 정신이 산란하다는 말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마음잡고 하는 일에는 열정도 있고, 신명도 있습니다. 마음을 잡되, 지나친 집착에 빠지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마음을 놓다가 쓰였을 겁니다.

말을 공부하는 저는 <말을 놓다>라는 표현을 볼 때마다 내가 언어에서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말을 놓는다는 말은 말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을 놓다의 반대는 말을 높이는 겁니다. 둘이서 긴장하며 말하다가 마음이 편해지고,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면 말을 놓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을 놓으시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친구들 관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말을 놓자고 합니다.

높임말이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친구 사이나 가까운 사이에 말을 놓을 수 있는 것은 행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서로 편하게 말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도 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언어 표현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해'라는 표현이 널리 쓰입니다. 해는 분명 아랫사람에게 주로 쓸 수 있는 말이지만, 가까운 사이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말을 놓을 수 있는 장치인 셈입니다.

말을 놓는다고 서로를 공경하는 마음마저 놓아서는 안 되겠지요. 말을 놓는 것은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긴장을 없애자는 의미이지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편한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놓아도 기본이 좋은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 전자비자 시행으로 극동연방구에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의 방문이 잦아진다

자유항 정책에 따라 프로그램 시행 기간에 극동 지역들 방문용 전자비자 9000건이 발급되었다. 이 중 3000건이 최근 2개월 동안 발급되었는데 전자비자로 프리모리예, 캄차트카, 그리고 2018년 1월부터는 사할린 방문도 가능해졌다

가장 많았던 전자비자 발급 대상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들로 현재 중국인들 5300여명에게 전자비자가 발급되었다. 두 번째로는 일본인들로 2300명에게 발급되었다.

전자비자 발급 신청은 특별 사이트에서 18개국 국민들이 할 수 있으며 방문 예정일 4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별도의 세금이나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된다.

전자비자 시행으로 이미 14개국의 외국인 59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주말에 러시아연방 정부는 극동연방구의 국제공항들에서 전자비자 시행책의 확대를 지지했다.

이미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엘리조위), 블라고웨렌스크, 하바롭스크(노위), 유즈노사할린스크(호무토위), 아나닐(우골닉)의 공항들에서는 전자비자에 따른 외국인 입국절차를 준비하고 기술적 장비를 갖추었다.

## Чаще всего по электронным визам в ДФО приезжают китайцы и японцы

Почти 9 тыс. электронных виз для посещения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 помощью режима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ыдано за время действия программы. Около 3 тыс. из них было оформлено за два последних месяца. По такой визе можно приехать в Приморье, на Камчатку, а с января 2018 года и на Сахалин.

Чаще всего электронную визу получают жители КНР.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ыдано более 5,3 тыс. таких виз гражданам Китая.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граждане Японии, им выдано 2,3 тыс. электронных виз.

Всего же граждане 18 стран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электронной визы на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м сайте. Сделать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за четыре дня до предполагаемого въезда. Электронная виза выдается бесплатно, без взимания каких-либо сборов.

Упрощенным визовым режимом уже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5,9 тыс. иностранцев из 14 стран.

В конце прошлой нед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подержал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режима электронной визы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аэропорты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Технически оснащены и уже готовы для оформления въезда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по электронным визам аэропорт Петропавловска-Камчатского (Елизово), Благовещенска, Хабаровска (Новы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Хомутово), Анадыря (Угольный).

## 유즈노사할린스크, 명절 체스 기습경기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조국 수호자의 날 기념하여 체스 블리치(기습)경기가 열렸다.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코르사코브의 시민 21명이 참가하여 경쟁자들과 시간 싸움을 했다. 참가자들은 스위스 시스템으로 11경기를 치렀다.

첫 예선전에서 드미트리 정은 6연승을 거두었으나 7회전에서 올레그 웨레샤긴에게 패하고 8회전에서는 이고리 체른초브와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결승에 올라 3경기를 치른 드미트리 정은 경기 결과 11점 만점에 9,5점을 받아 우승하여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9점을 받은 이 위탈리(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차지했다. 그는 9승 2패로 드미트리 텐과 이고리 체른초브한테 패했다.

아르쭘 로시이첸코(코르사코브)와 이고리 체른초브(유즈노사할린스크)는 8점을 획득했다.

우수 순위 5번째는 FIDE 마스터로 올레그 웨레샤긴(유즈노사할린스크)이 7점을 획득했다고 주스 포츠청소년정책부 홍보실이 전했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праздничный блиц-турнир по шахмата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блиц-турнир по шахматам, посвященный Дню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С соперниками и временем боролся 21 участник из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и Корсакова. Они сыграли 11 туров по швейцарской системе.

На старте турнира шесть партий подряд выиграл Дмитрий Ден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седьмом туре он проиграл Олегу Верещагину, а в восьмом сыграл вничью с Игорем Чернцовым. Три победы на финише принесли первое место Дмитрию Дену. Его результат 9,5 очков из 11 возможных.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 Виталий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бравший 9 очков. В его активе девять побед, в пассиве — поражения от Дмитрия Ден и Игоря Чернцева.

По 8 очков набрали Артем Российченко из Корсакова и Игорь Чернц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ТОП-5 законил мастер ФИДЕ из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Олег Верещагин (7 очков), сообщает пресс-центр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한국방문 체험수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한-사할린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문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 주민 누구나

**공모부문:** 한국방문 체험수기(글 종류 및 언어 무관)

**작품주제:** 모국방문(적십자사), 초청검진(국립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동포재단 초청사업(한국어교사연수,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영비즈니스포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해 체험한 대한민국 방문 후기 및 소감

**공모기간:** 2018년 3월 말까지 새고려신문사로 우편 및 메일 발송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최우수 1명-300달러, 우수-1명 200달러, 장려-2명 100달러) 수여 외 우수작은 새고려신문 게재 예정.

##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 새고려신문 살리자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